

회고사



故이경수 박사를 기리며

정학균 교수(1986년 당시 건축과 학과장) / 윤봉옥 박사(국립목포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주)송림 고문)

목포시 구도심 한복판 오거리에서 유달산 방향으로 약 10미터쯤 걸으면, 간판은 없고 낡은 건물만 있는 옛 유달이비인후과 의원 자택이 눈(眼)에 들어온다. 60~80년대 초까지 목포오거리는 서울 명동, 광주 충장로 거리처럼 밤의 무대로 삼고 있는 멋진 신사건달들이 우글거리는 거리로도 유명하다. 오거리는 우리 시대의 애환이 담긴 이야깃거리로 민물다방, 묵다방은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다.

옛 유달이비인후과 원장이었던 故이경수 박사는 의료인 출신으로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영화중학교 세한대학교 및 당진캠퍼스 설립자이자 교육자로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목포중앙병원, 목포재활요양병원, (전)전남중앙병원, (전)목포노숙자병원, (전)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광양중앙병원 등의 설립자로서 전남의 의료환경 개선과 무료진료봉사 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서민들과의 대화가 거의 없던 6·70년대의 시대상황에서도, 서민과 대화를 많이 나누던 분이다. 항상 소탈하고, 대화 속에서 인정(人情)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꺾병을 진료하는 의사는 이경수 박사 한 명이었다. 그는 오거리에서 패싸움을 하고 귀를 다친 청년들이 찾아오면 편견 없이 환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치료를 해주었고,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대성동 초가집 문간방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쓰러져 세상을 떠난 백흥기 화백의 장례비를 김암기 화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후에, 백흥기 화가의 안정된 영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故이경수 박사의 나눔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故이경수 박사는 목포시 예술인들에게 큰힘이 되었다.

故이경수 박사는 평소, 교육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술자리에서는 소박한 동네 가게에서 소주 한 컵에 오징어 다리로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 사례는 의료계와 체육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결국 교육사업을 성공시킨 그는 교육계나 지역민에게 신화처럼 기억되는 인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또한 故이경수 박사는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연식정구협회장, 농구협회장, 목포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러 공로로 보사부장관(1964), 문교부장관(1981), 국민훈장 모란장(1998) 등을 수상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故이경수 박사는 2021년 11월 1일 93세에 우리 곁을 떠나셨다. 비록 육신은 떠났으나, 故이경수 박사의 숭고한 정신과 빛나는 업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면서 취업의 폭을 넓혀(졸업생 5만3천 명 이상), 목포시민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든 그의 나눔과 배려는 우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 그의 고귀한 뜻과 업적을 우리는 영원히 기리며,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설립자 이경수 의학박사가 운영하던 옛 유달이비인후과 의원 앞

내 푸른 세월이 목포과학대학교와 함께 흘렀습니다

박승학 교수(76학번·초대 학생회장·세무회계과 교수)



1995년 세무회계과 졸업생들과 함께 (아래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교수님께서 목포과학대학교 76학번이자 초대 학생회장
이셨습니다. 학교와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76년, 배움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목포문태고등학교 졸업 후, 목포과학대학교 (당시, 목포실업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분위기가 분명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생 자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초대 학생회장을 맡으며 대학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의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976년에 입학해 1977년 군에 입대했고, 1980년에 복학하여 1981년에 졸업했습니다. 지금처럼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가 나뉘어 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무과에서 교무와 학생 업무를 함께 맡았고, 도서관 선생님도 늘 학교의 일원으로 함께 근무하셨습니다.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구분 없이 어우러져, 말 그대로 가족처럼 대학을 하나씩만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식목 행사와 같은 교내 행사를 함께하며 학교의 터를 가꾸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교정 곳곳에 세워진 ‘전기는 국력이다, 아껴서 애국하자’라는 표지판을 바라보며 설립자님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외치던 1976년의 풍경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또렷이 떠오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교정은 제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공부에 대한 태도도,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성숙해졌고, 그 시간은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에서의 학생 시절은 지식 습득 이전에 공동체를 배우던 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 학생회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의 방식도, 운영 체계도 지금처럼 정립되지 않았지만,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열정만큼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때는 학생회라는 명칭이 아니고 연대장이 있었고, 부연대장, 대대장, 총무부장, 새마을부장, 문예부장, 훈련부장, 여학생부장 등으로 불렸던 게 생각나네요. 당시의 씨클(동아리)인 연극부, 사진부, 합창부, CCC, 불교학생회, 풍란회, JC, RCY, 전자과학응용연구회 등도 기억납니다. 모든 경험이 이후 제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졸업 후 다시 모교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하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사회로 나가기보다, 저는 먼저 모교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학교의 하루하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직장